| 현불논단 |

우리는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GPT' 열풍
불교, '전법GPT' 기대하며 전법사 발굴
'나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등
부처님 법 전하는 일은 바른 질문 기본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말만으론 안 돼
전법, 삶의 정답 아닌 해결점 제시 주력
전법 실천 이전 자기 사전점검들 필요해
전법사, 출재가 떠나 자기수행 철저해야

최근 오픈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100일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소스를 바탕으로 방대한 텍스터 데이터를 학습하여 백조개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질문에 대한 가능성 있는 해답을 단 몇 초만에 제시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제조용 로봇뿐만 아니라 생활편리를 위한 청소로봇, 서빙로봇, 요리로봇, 안내로봇, 헬스케어로봇 등이 인간을 대신에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조계종은 '전법GPT'를 기대하고 시대에 적합한 전법 문제 전문해결사를 찾고 있다. 이 시대에 전법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 삶의 해결점을 찾아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는 일은 바로 전법GPT에 적합한 질문을 던지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의 법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전법사의 자질이 있는가? 전법의 대상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정하는가? 그 대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전법환경은 마련되었는가?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가지고 법을 전달할 것인가? 나는 전법하며 기쁘고 행복한가?'

현실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라는 말만으로 전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법 실천 이전에 자신에게 전법 관련 질문을 하나하나 던지고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 머리카락에 불이 난 이는 남의 불을 끌 수 없고 스스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에게 전할 수 없다고 했다. 행복을 맛보지 못했고 지금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 모든 데이터를 담고 있기에 전법의 첫걸음은 부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진정한 전법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의 행복이 넘칠 때 지혜와 자비로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법 승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스님 개개인이 교육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이 행복해져야 승가의 행복 향기가 신자에게로 전달되고 대중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땅(또는 물 등)에 대한 가르침만으로도 설법하고, 상담하고, 전법까지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가? 불교와 삶에 대한 어떤 물음에도 땅(또는 물 등)에 대한 가르침만으로 대중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교에 다가오게 하고 법을 듣게 하며, 이해하고 법을 실천하며, 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러한 전법능력을 익히는 일의 전제는 바로 전법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 여기 전법목표와 대상, 내용과 방법에 맞게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

챗GPT가 주는 해답이 세속의 무상한 것에 속한 것이라면 전법GPT가 주는 해답은 무상한 것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인간 행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이고 물질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정신적인 일에 전념하는 전법을 추구해야 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짐을 내려놓거나 버리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이다. 전법은 업바람(업풍)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업바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법바람으로 중생의 마음을 평온하고 따뜻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전법사는 외적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혜와 자비의 데이터를 입력(Input)하고 출력(Output)해야 한다. 승려이든 재가자이든 전법사로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수행이나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社 說

산불 피해, 불심으로 보듬자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확산한 강릉 경포 산불. 4월 11일 발생한 이번 산불은 8시간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강릉 해맞이길 순례코스에도 포함돼 있는 조계종 4교구 말사인 위빠사나 수행도량 경포 인월사가 산불로 소실됐다. 이번 산불로 온국민이 사랑하는 경포는 하루아침에 적막강산이 됐다. 그 상처는 피해규모보다 더 커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조사를 비롯하여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장치는 너무나 미흡해보인다. 강릉 인월사만 하더라도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에 전국비구니회까지 나서 성금 모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 발생한 충남 홍성 일대의 산불에서도 덕숭총림 수덕사를 비롯해 홍성주지협의회 등 많은 불자들이 성금을 보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때다.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지만, 산불 이재민처럼 하루 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더욱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주변에 아픈 중생을 돌보는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다. 피해복구를 위한 금액의 많고 적음 보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으려고 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때다.

불교계의 성금모금에 담긴 온정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은 재난피해를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환경' 생각하는 부처님오신날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하대지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와 사찰 등 6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불교기후행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자들의 실천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3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후위기가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대처에 의지는 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다. 이에 불교기후행동은 약 한 달간 개인과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 수행의 일환인 108배와 연등만들기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 한다.

사찰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대신 스테인레스 컵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신도들에게도 사전에 텀블러 등 개인컵을 지참토록 제안할 수 있다. 식사 시에도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그릇을 이용하고 개인 그릇 등을 활용하며, 떡을 나눠줄 때 비닐 대신 뻥튀기 과자나 회수용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득이할 경우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주요사찰과 단체들에 캠페인 안내공문과 함께 포스터를 발송했던 불교기후행동은 올해부터 종이 홍보를 멈췄다. 종이생산과 우편발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이메일을 통한 웹자보 전송으로 캠페인을 지속한다.

불교계 시민단체와 사찰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 실천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불자들도 합심, 불교적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진달래꽃

진달래꽃이 피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마른 가지에서 분홍색 꽃을 피우는 진달래.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진달래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꽃이 진다고 진달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온갖 꽃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진달래는 어찌하여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일까. 지겠다(落花)는 결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달래꽃은 죽음 같은 겨울을 뚫고 나온 후 피어나고, 병아리는 어두운 계란 속에서 껍질이 깨어져야 밖으로 나온다. 인간의 정신도 생사를 구분 짓는 분별지(分別智)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가슴에 내려앉는다.

인간은 탐진치(貪瞋癡)의 삼독(三毒)이 떨어져야 한다. 번뇌와 망상으로 물든 마음을 떨쳐내야 한다. 선과 악, 세간과 출세간에 사로잡힌 마음을 비우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짓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진여가 드러난다.



그림 · 최주현

유한 속에서 무한을 보는 견성(見性)이다.

세상 짐을 진다는 진달래일까? 나의 짐을 지기도 힘든데 남의 짐을 지겠다는 진달래다. 내가 못다 진 짐을 나눠지는 진달래. 그 연약한 꽃잎으로 어떻게 이웃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려는 것인지. 이른 봄에 깨어나 세상 짐을 지고 일찍 꽃잎을 떨어뜨리는 진달래, 거룩하고 아름답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그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떠났다. 일본에게 억압당한 민족의 비참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해방을 부르짖으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선구자들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들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죽어갔다. 이보다 큰 사랑의 짐이 어디 있으랴.

수줍게 웃는 진달래꽃이 네 짐을 지라고 속삭인다. 인간의 삶도 태어나서 지는 진달래와 다르지 않은 것을.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짐을 지리라. 네 짐을 내가 지고, 내 짐을 네가 나누어지면 제 짐을 제가 지는 것이니 짐이랄 것도 없구나.

나는 시방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연계되어 짐을 져주어서 살아간다. 짐을 져주는 것을 자비나, 보시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순간 자연이 주는 기운과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가피로 살아간다. 짐을 져 준다는 생각 없이 짐을 지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로서 살아간다. 진달래에게 큰 사랑을 배운다. 4월의 봄빛으로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